

건강칼럼

가벼운 접촉만으로 사마귀 전염된다

사마귀에 물리면 피부에 사마귀가 생긴다. "타눈과 같은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는 등 사마귀에 대한 속설이 많다. 손등이나 발에 난 사마귀는 비교적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사마귀는 물론 물집처럼 난 수 십 개의 물사마귀로 고생하기도 한다.

사마귀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해 피부나 점막을 증식시켜 조그맣게 솟아오르는 피부질환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이기 때문에 사마귀가 있는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다. 발바닥에 발생한 사마귀는 감염된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온 바이러스의 일부가 죽지 않고 남아 있다가 목욕탕이나 수영장의 샤워실에 있는 욕실 슬리퍼를 통해서 잘 전염되며 물사마귀의 경우 피부 접촉을 통해 직접 옮기기도 한다. 특히 성기에 나타나는 사마귀 곤지름은 성접촉을 통해 높은 확률로 전염이 발생한다.

또 흔히 알고 있는 타눈과 사마귀는 서로 다른 질환이다. 타눈은 반복적인 마찰이나 압박으로 인해 각질층이 굳어지면서 뾰족하게 뭉쳐서 속 피부를 누르는 질환이다.

두 질환이 생기는 부위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같은 질환으로 오해를 하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질환이다.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사마귀나 물사마귀 바이러스에 노출된다 해서 모두 전염되지는 않는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는 각질로 이뤄진 보호막이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자극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러스가 피부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면역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어 들어온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죽게 된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있어 피부 보호막에 문제가 있는 소아에서는 물사마귀 바이러스가 피부에 쉽게 붙어서 감염을 일으킨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는 피부가 가려워 자주 긁게 되는데 이때 물사마귀가 있는 경우 같이 긁으면서 물사마귀를 더 퍼뜨리게 돼 실제로 젊은 부위를 따라 길게 선으로 물사마귀가 퍼져 있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사마귀의 경우는 피부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부위에 감염을 잘 일으키므로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 주위를 뜯고 손을 많이 씻는 사람도 사마귀의 감염이 많이 나타난다.

사마귀가 발바닥에 생겨 걷거나 땀 때 아픈 경우, 사마귀가 계속 자라거나 사마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사마귀는 기본적으로 정상 피부의 손상 없이 사마귀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마귀와 그 근처 피부까지 함께 제거하는 방법인 냉동치료, 레이저치료 등이 이용된다.

이 방법들은 대부분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질 수 있는 사마귀를 치료하는데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치료효과 면에서는 이 보다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마귀 치료에 자주 이용된다.

최근에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면역치료가 개발돼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알레

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사마귀의 치료를 유도하는 방법, 면역증강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마귀에 바르는 방법, 약물을 복용해 면역계의 활성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치료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매우 효과적인 경우도 있어 냉동치료 같은 힘든 치료를 받기 전에 한 번은 시도해볼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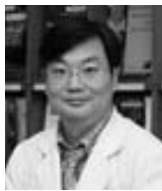
이밖에도 사마귀에 약물을 주입해서 피부를 파괴하는 방법, 각질연화제 성분을 매일 바르면서 조그맣게 깎아 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가 피부에 침투한 뒤 약 2~3달 후 눈에 필한 크기로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바이러스를 퍼트렸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피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가락을 빨지 않는 것은 물론 발바닥 등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발을 자주 씻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 발 등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있는 경우는 평소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고 피부를 긁어 손상을 입히는 일을 삼가야 한다. 또 평소 피부를 자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오신택

대전성모병원 피부과 교수

사설

노인들에게도 일자리 기회 주어야

본보는 도내 기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의 상노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당부하기가 좀 뉘하다. 그러나 60대나 70대 초반의 노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일할 기력이 충분하다.

도내 기업인들에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는 이유가 있다. 도내 기업인 중에는 노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이도 있는 것 같다.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손발이 느려서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이 아닌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젊은이에게 맡겨야 할 일감과 나이든 이에게 맡겨야 할 일감을 구분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니 말이다. 분명히 그런 까닭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미온적이었지 않다.

잘 관찰해보면 노인들이 젊은이보다 나은 점도 많다. 노인들은 우선 젊은이들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 인생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보다 많았으면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성실하다. 젊은이들 중에는 무단 결근하는 일이 있어도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드물다. 젊은이 중에는 한자리 진득하게 앉아서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가 있어도 노인들은 그렇지 않다. 노인들은 순응하는 태도로 맡은 바 일을 꾸준히 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당부하는 이유가 또 있다. 노인을 고용하면 젊은이를 고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보수가 적게 나가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일자리를 갈구하는 많은 노인들이 있다. 그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찾지 못해 그저 하릴없이 소일만 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들중에는 살림이 쪼들릴 정도로 가난한 세대도 있다. 일자리의 창출은 어느 한 순간의 생색만으로는 신뢰할 얻을 수 없다.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도 부족한 판에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해서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섬살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해야

다시 또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궁금한 때이다. 세월이 저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규직이 늘기는 고사하고 비정규직만 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말과 반비례하여 정규직 일자리가 오히려 예전보다 줄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이 늘기보다는 비정규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만 늘고 있으니 안타까운 세월이다. 현실과 희망이 같은 방향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유감이다.

정북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제 취업자들 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다. 정규직 일자리와 고용안정이다. 그런데 그 정규직 일자리와 고용안정이 결과적으로 식언이 되고 있다. 전북도의 능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도내 근로자의 39%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더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터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나아지기 보다는 나빠지고 있으니 문제이다. 전북도는 작금의 현실과 관련해 고민해야 한다.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을 두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규직 일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 일자리의 수준을 정상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도내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거의 모든 업종이 고전하는 가운데 일자리도 줄고 고용의 질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런 모습을 각 시군 지자체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을 말로만 아니라 진실로 헤아려 달라는 당부이다.

독자제언

교통안전표지판 운전자의 길잡이

단종철 나들이를 가기 위해 차를 가지고 도심을 벗어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데, 늘 다니던 길이나 출퇴근길처럼 익숙하지 못한 도로이기 때문에 운전이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초행길에 네비게이션까지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아 교행한 경험이 다들 한번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운전시 보이는 교통표지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평소 네비게이션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거나 출퇴근길 이외의 도로를 주행해 보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 교통표지판을 안내하자면 몇가지 주의 깊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교통안전표지판에는 신호가 있다.

단순히 교통신호라 하여 신호등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노면에 표시된 기호나 문자와 도로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교통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마련이다.

교통안전표지는 통행의 방법이나, 진행방향, 횡단보도에요 관련 등을 노면에 기호나 문자로 표시, 신호보다 지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 교통안전표지로는 주의, 규제, 지시, 표지판이 있고, 보조표지는 본 표지를 부연설명 및 보완하고 있다. 초행길에 네비게이션에 의존하지 말고 교통안전표지판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즐거운 단종철 여행이 되길바란다.

윤재철 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 경사

독자제언

사제총기 제작영상 게시·유포 행위 엄연한 범죄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칠 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사제총기 제작방법을 알아내고, 직접 총기를 제작하여 경찰을 살해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고등학생인 A군이 올해 1월경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피스를 제작 강좌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모두 5편의 사제총기 제작과 관련된 동영상들을 링크하여 게시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

A군은 호기심으로 장난감 권총을 만들어 보려고 했을 뿐 실제로 제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올해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기심으로 인한 게시·유포 행위도 엄연한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허가받은 총기나 도검이라 해도 인터넷에 판매 글을 남기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제총기 제작 동영상 등 그 파급 속도와 전파력이 여파마하이다.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업·다운로드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공유되며 한 번 게시된 글은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사제총기 제작 동영상 유포는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엄수정 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Large graphic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water with a sun in the background. Text on the right reads: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Below the illustration, text says: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